

## 공동체 소식

### 평협회 안내

- 18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주일학교 안내

- 학부모님 및 주일학교 교사 orientation: 8월18일 1시, 성당 지하실  
- 주일학교 시작 : 8월 25일, 10 am. 교육관

### 미사 안내

- 8월 15일(목)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는 오후 7시30분입니다.  
- 8월 20일(화), 21일(수), 22일(목), 27일(화), 28일(수), 29일(목) 9월 3일(화), 4일(수), 5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 미사 봉헌 안내

- 미사 예물을 봉헌시 봉헌자(이름 세례명), 지향자(이름, 세례명)를 정자로 써주십시오.  
- 생미사, 위령미사 중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 미사 지향자가 비신자일 경우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미사 중에 영혼이라 호칭합니다.)  
- Check으로 예물 봉헌시 받는 사람은 KCC로 써주시면 됩니다.  
- 미사 예물 금액을 봉투에 적어주십시오.  
- 미사 예물은 전례부에서 본당(KCC)으로 입금합니다.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근처 한인성당이나 미국성당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8월 구역모임

**2구역 - 16(토)일 오후 7시**, 이우석 프란치스코 가정  
10604 E Sheley Rd, Independence, MO 64052  
**3구역 - 23(토)일 오후 6시 30분**,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6402 W 134th Ter, Leawood, KS 66209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41	210	168	31
차 주	33	340	502	2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로마노)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차 주	김대연(요셉)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김지안(요한) 김정원(안젤라)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훈(로베르또) 정예진(하나)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예레미야), 강승호(아오스딩)
차 주	홍순익(마르티노), 김동술(요한)

### 애찬 봉사자

금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김희진
차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중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8월 25일)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타오르게 하시어, 아버지의 시간을 깨어 기다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 그림 묵상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루카 12 35-37

제 1 독 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8,6-9 <주님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1-2.8-19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2-48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 생명의 말씀

## 깨어 있어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집을 뚫고 들어올지 모르는 도둑을 막기 위해 깨어 있는 집주인처럼,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고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예측들은 틀릴 것이고, 인간적 계산들로도 맞지 못할 것이며, 징표들도 항상 잘못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일반적이고 막연한 깨어 기다림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려면 아주 특별한 깨어있음이 요구됩니다.

첫째, 이 특별한 준비 '깨어있음'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윤리적 장애 없이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필리 2,15 참조). 즉, 의로움의 열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 있는 생활을 해나감을 뜻합니다(필리 1,11 참조).

둘째,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그분 앞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베드로 사도는 원로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함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위에서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1베드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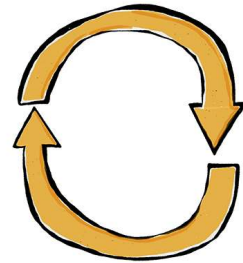
이러한 임무를 위해 '충실성'과 '지혜로움'이 요구됩니다. '충실성'은, 종들은 단지 분배자일 뿐 주인이 아니기에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주인이 언제든 예기치 못한 때에 돌아와 맡긴 일에 대해 계산을 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에게 심판은 죄에, 그리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주어졌으니 하느님께서 더 요구하실 것이며, 만일 잘못하는 경우에는 벌도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사랑이 충만한 하느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늘 자각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하도록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선택하면서 분별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지혜를 받아 매일 매순간 결단력 있게 육적인 자기 자신과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의 유혹과 싸워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매일매일은  
빠짐이 없는 날.

빠짐이 없다는 한결같은 것.

매일매일이 한결같은 이는  
그분을 닮은 사람.

처음부터 이제 와 영원까지  
한결같은 그분을 닮은 사람.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루카 12,38)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깨어 있음 세 가지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루카 12.37)

[깨어 있음 하나]

올해 7월 말에 가톨릭 전례음악 하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가 전례 지휘 고급반을 신청한 뒤, 지휘 기법을 배우고 또 저녁엔 가톨릭 성악가분들과 작은 음악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공, 지휘 경력, 실력 등을 넘어 오랫동안 가톨릭 전례음악 안에 성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좋은 점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성가와 현대적인 생활성가의 혼치 않은 조화를 경험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모두가 가톨릭 전례 안에 하나 됨을 확인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교수님들의 강의, 기도, 음악회, 친교의 시간 등을 거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휘자로서 성가대를 도우 삼아 제 위주의 성가를 표현했다면, 앞으로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께 음악으로 봉헌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피정은 참가한 서로에게 믿음과 희망, 사랑을 남겼습니다.

[깨어 있음 둘]

해마다 8월 중순이 되면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생명과 평화 통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음악회를 엽니다. 2014년부터

제가 그분들과 함께 노래하며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은 서로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 담긴 본질적 의미인 이웃을 사랑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주제로 음악회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을 대하면서 저 또한 조금씩 깨어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깨어 있음 셋]

제가 속해있는 가톨릭남성중창단(베다중창단)에는 17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40~60대 남성 신자로 이루어져 처음에는 친교를 목적으로 모였지만 점차 봉사하는 선교 찬미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교도소, 구치소, 농촌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친교도 나누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 동료들과 함께 성당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신나는 음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대학가요제나, 농촌활동처럼 흥겨운 노랫소리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다시 오지 않을 이 하루를 또 깨어있음의 즐거움으로 보내려 합니다.

신상옥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 복음묵상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죽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루카 12.33

캘리그래피  
홍명희 헬레나